

주간 통일정세

2018-05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1.30	전남대-광주평화재단 북한농업 연구·지원사업 나선다(연합뉴스)
	1.31	평통사 “평창올림픽 후에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계속돼야”(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	1.27	北선발대, 남측CIQ 통과…2박 3일 방남 마치고 육로 귀환(연합뉴스)
	1.28	‘관계 해빙기’ 경기도 남북교류 사업 본격화한다(연합뉴스)
	1.29	통일부 “스키훈련, 전세기로 갈마비행장行…이용료는 안 내”(연합뉴스)
		서울시청서 2월 12일 北태권도 시범…200~300명 관람 가능(연합뉴스)
	1.31	마식령 정상 함께 오른 남북 스키선수들 “우리는 하나다”(연합뉴스)
		‘남북 간 항공 핫라인’ 2년 3개월만에 열려…“관제 협력”(연합뉴스)
	21	전주시,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교류사업 적극 모색(연합뉴스) 북한 선수단 본진 32명, 만면에 미소 띠며 양양공항 도착(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2018. 1. 30.

■ 전남대-광주평화재단 북한농업 연구 지원사업 나선다(연합뉴스)

- 전남대학교 '북한농업연구소'와 사단법인 광주평화재단이 북한농업 연구와 지원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함.
- 전남대 북한농업연구소와 광주평화재단은 지난 29일 농업생명과학대학 중회의실에서 북한농업 연구와 지원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두 기관은 북한농업 발전과 관련한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함께 나서고 북한농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

2018. 1. 31.

■ 평통사 “평창올림픽 후에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계속돼야”(연합뉴스)

- 반전(反戰)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폐럴림픽이 폐막한 후에도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북한 핵·미사일실험의 동시 중단이 이어져야 한다”고 31일 요구했는데, 평통사는 이날 정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들은 “국방부는 3월 말부터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키리졸브 훈련이 열리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함.
- 이어서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기적처럼 만든 대화의 기회’는 물거품이 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계올림픽·폐럴림픽 후에도 한미와 북한의 군사행동 동시 중단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함.

나. 국제사회

■ 특이사항 없음

2. 남북 교류협력

2018. 1. 27.

■北선발대, 남측CIQ 통과…2박 3일 방남 마치고 육로 귀환(연합뉴스)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사전 점검차 방남한 북측 선발대가 27일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북한으로 돌아감.
- 북측 선발대는 방남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에서 태권도시범단이 목을 숙소로 예상되는 위커히호텔을 방문한 뒤 태권도 공연장으로 끄히는 마포구 MBC상암홀을 찾았으며, 앞서 지난 25일 경의선 육로로 내려온 이들은 곧장 강원도로 이동, 응원단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인제 스피디움을 시작으로 강릉 아이스아레나, 관동하키센터, 평창 올림픽스타디움, 용평 알파인스키장,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등 올림픽 관련 시설들을 두루 방문함.
- 북측 선발대가 사전 점검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남북 선발대의 사전 점검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남측 선발대는 지난 23일 동해선 육로로 방북, 남북 합동문화행사가 열릴 금강산 지역, 남북 스키선수들이 함께 훈련할 마식령 스키장, 원산 갈마비행장 등을 둘러보고 25일 돌아옴.

2018. 1. 28.

■‘관계 해빙기’ 경기도 남북교류 사업 본격화한다(연합뉴스)

- 경기도는 “남북 고위접촉에서 남북교류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뤄진 상태”라며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개성공단 대체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북한과 별개로 추진 중인 현안에 총력을 쏟을 방침임.
- 개성공단 대체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 1천 200억 원을 들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IC 부근에 16만 5천㎡ 규모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 생산시설과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도는 3월 중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 심의에서 이 사업이 통과하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2018. 1. 29.

■통일부 “스키훈련, 전세기로 갈마비행장行…이용료는 안 내”(연합뉴스)

- 통일부는 29일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시 전세기를 띄워 북한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북측에 비행장 이용료는 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 스키훈련을 위해 갈마비행장으로 전세기를 띄우게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함.
- 백 대변인은 또 “북측이 공항 이용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비행장 이용료와 영공 통과료는 따로 내지 않는다”고 설명함.
- 그는 북한 공항을 거쳤던 항공기가 180일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전세기를 선택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남북합동행사 관련해서는 제재 관련 논란이 없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그런 우려 사항, 고려사항들을 잘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함.

2018. 1. 31.

■ 서울시청서 2월 12일 北태권도 시범...200~300명 관람 가능(연합뉴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연을 펼치는 북한 태권도시범단은 주로 강한 격파, 낙법과 호신술을 선보일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남북 태권도시범단의 합동공연이 2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고 31일 밝혔는데, 서울시는 “사대문 안 서울도심에서 남북 합동공연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세계태권도연맹(WT)의 요청을 받고 서울시청 다목적홀을 제안해 이번 공연이 열리게 됨.
- 시민 관람을 위한 객석은 200~300석 규모로 꾸러지게 되는데, 격파 때 파편 등이 튀기 때문에 간격을 뒤야 하는 데다 선수단 등 관련 참석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시민 관람객 규모는 안전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음.

■ 마식령 정상 함께 오른 남북 스키선수들 “우리는 하나다”(연합뉴스)

- 스키 공동훈련 첫날인 31일 남북 선수들은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만나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며 함께 사진을 찍었음.
- 우리측 스키선수 24명은 이날 오후 마식령스키장에 도착해 짐을 풀 뒤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북측 선수들과 함께 자유스키를 탔으며, 북측 선수 중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도 섞여 있었는데 첫 만남이 어색했는지 남북 선수들끼리 서로 대화하거나 어울리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음.
- 남북은 공동훈련 중에 선수들이 스키복에 번호표를 달 때 남측은 태극기를,

북측은 김일성·김정일 초상회장(배지)을 위쪽에 함께 달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번호표 외에 옷에 달아도 되는지 등에 대한 합의는 따로 하지 않았음.

■ ‘남북 간 항공 핫라인’ 2년 3개월만에 열려…“관제 협력”(연합뉴스)

- 마식령스키장 스키 공동훈련 참가자를 태운 전세기 운항을 위해 2년 3개월 동안 사실상 끊겼던 남북 항공 핫라인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확인됨.
-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 측 스키선수단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의 남북 간 운항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남북 항공 핫라인이 사용됨.
- 양양국제공항을 이륙한 전세기가 북한 공역으로 진입하기 전 대구 제2항공교통센터(ATC)에서 북측에 항공기 호출부호, 고도, 항공기 식별부호, 예상도착 시각 등을 핫라인을 통해 전달함.

2018. 2. 1.

■ 전주시,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교류사업 적극 모색(연합뉴스)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는 1일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할 남북교류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위원들은 최근 급변한 한반도 정세를 청취하고 전주의 비전을 담아 가장 인간적이고 인도적이며 평화적인 교류협력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함.
- 한 위원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사례로 들며 “통일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전주시의 강점인 문화와 생태 분야의 교류사업을 주문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북한이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신뢰관계 형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무작정 큰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예술단 교류 등과 같은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시는 오는 8일에는 남북교류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포럼을 여는 등 교류사업 활성화 노력을 다하기로 함.

■ 북한 선수단 본진 32명, 만면에 미소 띠며 양양공항 도착(연합뉴스)

- 원길우 선수단장과 스키·빙상 선수 10명 등 임원을 포함한 북한 측 인원 32명은 1일 오후 6시 9분께 전세기편으로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함.
- 북한 선수단을 이끄는 원 단장은 역도 선수 출신의 체육성 부상으로, 올해 남북 고위급회담과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 대표로 참여한

인사임.

- 북한 선수 10명은 알파인 스키 3명, 크로스컨트리 스키 3명, 피겨스케이팅 페어 2명, 쇼트트랙 2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원 단장과 선수들 외에도 코치 3명과 지원인력 18명이 북한 선수단 본진에 포함되었음.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9	北신문, '일심단결' 강조하며 '내부결속·충성' 독려(연합뉴스)
	1.30	北 '민용항공총국장', 국제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연합뉴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두달여만에 중국정부 행사에 등장(연합뉴스)
	2.1	北김정은, 평양무제도전차공장 방문...올해 네번째 현지시찰(연합뉴스)
		北통신 "한성렬 외무성 부상, 스웨덴 총리와 담화"(연합뉴스) 北외무상, 유엔총장에 "美핵전쟁 도발 중지 노력해달라" 촉구(연합뉴스)
군사	1.30	WSJ "북한군, 동계훈련 규모 예년보다 축소"(연합뉴스)
		VOA "김일성광장에 대규모 인파 집결...열병식 준비돌입 정황"(연합뉴스)
	1.31	"북한,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 열병식서 ICBM 수습 기 과시"(연합뉴스)
	2.1	"북한 열병식훈련장 과거와 달리 천막촌 없어 규모 축소 시사"(연합뉴스)
경제	1.30	RFA "北, 개성공단서 의류제품 생산해 시장 유통"(연합뉴스)
		RFA "과다지출로 김정은 비자금 고갈 상태"(연합뉴스)
사회 문화	1.27	北, 휴대전화·컴퓨터 기상정보 서비스 시작(연합뉴스)
	1.29	북한에서도 '게임중독' 증가 관측...北신문, 폐해 소개(연합뉴스)
	1.31	北, 김정은 체제 들어 '스키 장려' 움직임 활발(연합뉴스)
		北 "평양과 각 도에 축구학교 설립...4월 개교"(연합뉴스)
	2.1	북, 체제불만세력 통제위해 건설 동원(RFA)
외교 국방	1.27	"北, 미국인 '상주 허가증' 작년 말 직권 말소"(연합뉴스)
		北, 이란과 문화·교육 등 분야 양해각서 체결(연합뉴스)
	1.30	美國무부 "평창올림픽 전후 北관리 만날 계획 없다"(연합뉴스)
		北, 美인권상황 비난 '백서'... "인권불모지·범죄 천국"(연합뉴스)
	1.31	北외무성, 美추가제재에 "북남교류 찬물 끼얹으려는 흉심"(연합뉴스)
		러시아 "내년까지 북한노동자 전원 본국송환" 의지(연합뉴스)
		北주재 러 대사 "부임 이후 김정은과 대면접촉 없어"(연합뉴스)
	2.1	北신문 "美 핵전쟁 준비...홍악한 계획 실행단계" 주장(연합뉴스)
		北매체 '김정은 연하장 받은 정상' 거명순서, 中·러 뒤로 밀려(연합뉴스)
		요르단,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RFA)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21	평양무궤도전차공장 현지지도	오수용, 조용원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2. 1.

■ 北김정은,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방문…올해 네번째 현지시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 지도하셨다”며 이 공장이 12개의 건물을 새로 건설하고 4개의 건물을 보수하는 방대한 개건 현대화 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소개함.
- 김 위원장은 공장을 둘러보며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고 이 빠진 설비들도 보충하였는데 국산화 비중을 92% 이상 보장했다”고 만족을 표시했으며, 이어 공장에서 생산한 신형 무궤도전차에 올라 “우리 노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이 어려있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면서 “대중교통수단인 무궤도전차가 수도 평양의 얼굴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시찰에는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김수길 평양시당 위원장이 영접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1. 30

■ 北 ‘민용항공총국장’, 국제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연합뉴스)

- 북한 항공당국 관계자가 중국에서 열리는 민간항공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중앙통신은 “민용항공총국 총국장 립광웅을 단장으로 하는 민용항공총국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용항공 부문 상급(장관급)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3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밝힘.
- 민용항공총국은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운영하는 등 민간항공 부문을 관장하는 기관이며, 립광웅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보선됐고, ‘민용항공총국 총국장’으로 북한 매체에 호명된 것은 처음임.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두달여만에 중국정부 행사에 등장(연합뉴스)**

-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30일 저녁 베이징(北京) 조어대(釣魚台)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 주최로 외교 사절을 대상으로 신년 리셉션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그동안 북한대사관에서만 칩거하던 지재룡 중국주재 북한대사가 오랜만에 중국정부 행사에 참석함.
- 베이징 소식통은 “두 달여 간 외부 활동을 안 하던 지재룡 대사가 중국 외교부 행사에 나왔다는 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경색된 북·중 관계도 올해는 풀어보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으로선 큰 타격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지 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였던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의 방북 후 귀국 당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마중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2018. 2. 1

■ **北통신 “한성렬 외무성 부상, 스웨덴 총리와 담화”(연합뉴스)**

- 한성렬 부상이 이끄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지난달 30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를 만나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뢰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스웨리에(스웨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성렬 부상은 이날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 장관을 예방했고, 외무성 국무비서와도 회담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1. 29.

■ **北신문, ‘일심단결’ 강조하며 ‘내부결속 총성’ 독려(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공화국 창건 70돌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오늘 우리 앞에는 공화국 창건 70돌을 성대히 경축하고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세워야 할 전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목표는 방대하고 적들의 야만적인 제재·봉쇄는 계속되고 있지만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라며 “일심단결의 기상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뜻깊은 올해는 우리 조국 역사에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주장함.
- 사설은 “김정은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라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 독려함.

2018. 2. 1.

■ 北외무상, 유엔총장에 “美핵전쟁 도발 중지 노력해달라” 촉구(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외무상 리용호 동지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북남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로 향한 긍정적인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시기에 이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월 31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서한에서 “(미국이) 북과 남이 마주앉아 평화의 장을 열어나가는 시기에 핵 항공모함 타격단들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 주변에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리 외무상은 구테헤스 사무총장에게 “당신이 유엔 헌장에 따르는 자기의 사명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해치는 미국의 핵전쟁 장비 배비와 핵전쟁 도발 책동에 심중한 주목을 돌리고 이를 완전히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당면하여 당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절차규정 제2장 6조에 근거하여 북남관계 개선 과정을 환영하고 주변 나라들이 그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 데 대한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전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1. 30.

■ **WSJ “북한군, 동계훈련 규모 예년보다 축소”(연합뉴스)**

- 북한군의 동계훈련 규모가 예년보다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함.
- 북한군은 통상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동계훈련을 하는데 이번에는 과거보다 시작도 늦고 규모도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미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동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믿고 있다고 WSJ은 보도함.
- 연간 정유제품과 원유의 대북 수출을 각각 50만 배럴과 40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제재 여파로 북한군이 유류 절감을 위해 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임.

■ **VOA “김일성광장에 대규모 인파 집결…열병식 준비돌입 상황”(연합뉴스)**

- 북한이 내달 8일 이른바 ‘건군절’을 앞두고 평양 시내 김일성광장에서 본격적인 열병식 준비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지난 28일(평양시간) 오전 11시 24분 찍은 위성사진에는 김일성광장이 대규모 인파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는 붉은 물결로 뒤덮여 있고, 붉은색 중심에는 노란색으로 만들어낸 3개의 글자가 어렴풋하게 보였다고 VOA는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10시 56분과 오전 10시 17분 위성사진에서도 인파가 집결한 모습이 확인됐는데, 다만 앞선 사진에서는 드러난 글씨가 없었고 대열이 앞뒤로 조금 더 줄어든 점으로 미뤄 인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방송은 분석함.

2018. 1. 31.

■ **“북한,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 열병식서 ICBM 수습 기 과시”(연합뉴스)**

-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2월 8일 개최하는 군 열병식에서 장거리 미사일 수습 기를 과시할 계획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정통한 외교소식통 2명을 인용해 서울발로 31일 보도함.
- CNN은 수백 개의 미사일과 로켓을 보여주는 건 미국인들을 겁먹게 하려는 시도일 것이라는 한 소식통의 분석을 옮기며 이같이 전하고 작년 11월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수십 개가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소식통들은 또, 북한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전개된 미 군사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가까운 미래에” 다시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CNN은 설명함.

2018. 2. 1.

■ “북한 열병식훈련장 과거와 달리 천막촌 없어 규모 축소 시사”(연합뉴스)

- 지난달 28일 촬영된 에어버스 디펜스&스페이스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38노스 기고문에서 미립 훈련장엔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훈련 참가 병력과 중장비도 늘어나 병력은 최소 1만2천 명, 대포와 탱크, 장갑 수송차량과 장갑 전투차량 등 중장비 110대가 28일 자 사진에서 포착됐다고 밝히고, 전례에 비춰 이 중 일부는 예비용인 것으로 추정함.
- 과거 대규모 열병식 때는 훈련장 동쪽 끝에 임시 숙소로 대규모 천막촌이 추가로 세워졌으나 이번엔 천막촌을 세우는 움직임이 없어서 이번 열병식 규모는 과거 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버뮤데즈 연구원은 예상함.
- 위성 사진상 통상 미사일 발사차량(TEL)과 장사정포와 미사일 수송차량을 포함한 중장비 보관소가 세워졌던 구역에 이번에도 수주전 보관소가 세워졌으나, 어떤 중장비나 차량도 아직 보이지 않음.
- 그러나 보관소 동쪽 마당에 대형 견인트럭들이 여러 대 서 있는 점으로 미뤄 이미 일부 중장비는 훈련장에 반입돼 보관소 안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전례와 현재의 모양으로 추산하면 이 보관소는 미사일 발사 차량과 기타 중장비를 총 3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임.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8. 1. 30.

■ RFA “北, 개성공단서 의류제품 생산해 시장 유통”(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의류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전언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 아시아프레스는 복수의 취재 협력자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의류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했으며, 취재 협력자가 만난 유통업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RFA는 설명함.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아무런 상표나 로고가 없고 ‘공단 제품’이라고 불리며 판매되고 있으며, 물품들은 기관이나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신흥 부유층에게 넘겨져 지방 도시로 유입되며, 중국 제품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질이 좋아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RFA는 전함.
- 아시아프레스는 개성공단 사정을 잘 아는 유통업자가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재봉사는 하루에 북한 돈 1만 6천원, 다림질하는 인력은 하루에 북한 돈 1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RFA “과다지출로 김정은 비자금 고갈 상태”(연합뉴스)

- 2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RFA는 북한 정부관리들과 연관된 2개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 2011년 권좌에 오르면서 부친 김정일로부터 통치 자금으로 상속받은 비자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전함.
- 이들 소식통은 북한 지도부가 마지막 순간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키로 한 것은 악화하고 있는 내부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힘.
- 39호실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이 소식통은 김정은의 방만한 지출로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비자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39호실 관리들)이 부족한 자금을 대해 걱정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함.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8. 1. 27.

- **北, 휴대전화·컴퓨터 기상정보 서비스 시작(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27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최근 기상정보교류소에서 손전화망과 컴퓨터망을 통한 기상정보 봉사를 새로 시작했다”면서 “가입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손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요 지점들의 현재 날씨 상태와 1주일 일기예보를 실시간 봉사 받으며 이밖에 기온, 강수량 등 다양한 기상정보들도 상세히 봉사 받는다”고 밝혔으며, “특히 각 도·시·군·리의 농업기상 상태와 기후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봉사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손전화망과 컴퓨터망을 통한 기상 봉사는 필요한 기상정보들과 재해성 정보들을 신속·정확히 열람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가입자들의 호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함.

2018. 1. 29.

- **북한에서도 ‘게임중독’ 증가 관측…北신문, 폐해 소개(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9일 ‘세계적 우려를 자아내는 오락의존증’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지난해 연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ICD)에 추가하기로 한 점 등을 인용하면서 “세계가 오락의존증(게임중독)을 해소하

- 기 위해 해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부분의 전자오락들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리를 파괴하고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전자오락에 심취되어 학업을 등한시하고 현실적 사고능력과 사회 적응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에서 컴퓨터오락실을 운영했던 한 탈북민은 “최근 ‘정보기술봉사소’라는 이름으로 평양은 물론 지방에도 한국의 PC방 같은 곳들이 많이 생겨났고,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 컴퓨터게임이 일상화됐다고 한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휴대전화의 확산하면서 모바일 게임도 일상화돼가는 추세”라고 전함.

2018. 1. 31.

■ **北, 김정은 체제 들어 ‘스키 장려’ 움직임 활발(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지난 27일 “제44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대회 스키 경기와 9월 5일상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 스키 경기가 (양강도) 혜산시 연봉산 스키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 그동안 성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나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등에는 매년 스키 종목이 포함돼왔지만, 청소년들의 ‘전국 대회’에서 스키 경기가 열렸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해 2월 ‘공화국에서 스키 바람이 일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손길 아래 오늘 공화국에서 스키 종목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며 “원수님의 영도에 의해 스키 타기는 보다 대중화, 생활화되어 나라의 체육 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평양과 각 도에 축구학교 설립…4월 개교”(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조선(북한)의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 축구학교들이 나오게 된다”며 “(학제는) 소학반 2년, 초급중학반 3년, 고급중학반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기초과목과 축구이론 및 실기를 위주로 교육하게 된다”고 밝힘.
- 이어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서는 나이별에 따르는 학생 선발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축구학교들에 보다 훌륭한 교육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며 “축구학교들의 개교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소개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축구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에 남다른 애정을 과시해 왔으며, 북한은 김 위원장 취임 후 ‘체육 강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있음.

2018. 2. 1.

■ 북, 체제불만세력 통제위해 건설 동원(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 양강도와 자강도의 소식통을 통해 “삼지연 건설을 위해 조직된 ‘216사단’의 인력은 아직도 10만 명이 넘”으며 대략 “원산 시 건설에 20만명”, “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에는 보병 17만명, 강원도 2만명, 서해간석지건설사업소 3만명과 철도성 1만명”이 동원됐으며, “올해 각 도소재 지들에 아파트 10동 이상씩 건설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오면서 방향을 받았던 지방대학 학생들까지 모두 불러들이고 있다”며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사람들도 건설에 동원됐다”고 전함.
- 소식통은 “중앙에서 이렇게 군인들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을 모두 끌어다 집단생활을 시키면서 각종 건설에 동원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다”며 “그 원인은 인민들 속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고 주장함.
-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사회에 널려 있는 젊은이들과 후방공급이 어려운 보병병사들을 내부 불만세력으로 간주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통제하려 든다”며 “이들을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돌격대와 같은 집단생활을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임.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1. 27.

■ “北, 미국인 ‘상주 허가증’ 작년 말 직권 말소”(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미국인들에게 발급해줬던 ‘상주 허가증’을 지난해 말 직권으로 말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RFA는 “북한 당국은 장기간 북한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에게 상주 허가증이란 것을 발급해 주고 있다”라며 “그런데 미국인에게 발급한 상주 허가증은 지난 연말을 기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직권으로 무효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에서 사업하는 재미 교포를 인용해 전함.

- 이 재미 교포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방북을 금지함으로써 미국인에게 발급한 상주 허가증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소해버렸다는 게 북한 측의 설명이었다”고 밝힘.

2018. 1. 30.

■ **미국무부 “평창올림픽 전후 北관리 만날 계획 없다”(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미국과 북한 관리들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전함.
-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올림픽 경기 전후로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그는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대화 의지에 대한) 진정한 신호는 도발적인 행동을 비롯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른 무기 실험들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의 진지하고 신뢰할만한 협상에 열려있지만, 현재 북한은 신뢰할만한 대화에 관심이 없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함.

■ **北, 美인권상황 비난 ‘백서’…“인권불모지·범죄 천국”(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북한 국제문제연구원 명의로 발표된 8천여 자 분량의 ‘2017년 미국 인권유린 백서’를 게재함.
- 국제문제연구원은 “2017년 한 해 미국에서 빚어진 인권 참상을 통하여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국 미국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정체를 낱알이 까밝히고 국제적 정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고 밝힘.
- 이어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만성’,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인권 불모지’, ‘패륜 패덕이 범람하는 범죄의 천국’이라는 소제목 하에 미국 내 인종차별과 빈곤문제, 성차별, 각종 범죄 문제 등을 나열함.
-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인권소동의 기만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가려보고 각성 있게 대하여야 하며 트럼프 일당의 인권 모략 책동을 짓부수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2018. 1. 31.

■ **北외무성, 美추가제재에 “북남교류 찬물 끼얹으려는 흥심”(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27일 미국의 최근 추가 제재에 대해 ‘남북교류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흥심’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추가 제재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단독 제재 높음은 군사적 위협과 함께 제재·압박으로 기어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며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력 과정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격화시켜보려는 흥심의 발로”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가 전대미문의 제재·압박 속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을 보유한 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아직도 제재에 매달리는 미국이 답답하고 가소롭기 그지없다”면서 “미국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도발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함.

2018. 2. 1.

■ **北신문 “美, 핵전쟁 준비…흉악한 계획 실행단계” 주장(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불의적인 선제타격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전면전쟁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흉악한 계획은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오관으로 차례질(돌아갈) 것은 중국적 멸망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지금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둔 때이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날아야 할 조선반도에 미국은 핵전쟁의 구름을 몰아옴으로써 저들이야말로 이 지구 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평화의 극악한 원수, 전쟁 미치광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면서 이같이 미국을 비난함.
- 신문은 “전 세계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북과 남 사이의 회담을 환영하고 있는 때에 미국은 그와 배치되게 조선반도 지역으로 대규모 무력을 이동시키고 있다”며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대북 강경 발언도 거론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8. 1. 31.

■ 러시아 “내년까지 북한노동자 전원 본국송환” 의지(연합뉴스)

-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내보낸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인테르팍스를 인용해 31일 보도함.
- 알렉산데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의 결정을 따라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러시아로부터 (본국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이어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또 러시아 내에는 어떠한 불법 북한 노동자들도 없다고 주장함.

■ 北주재 러 대사 “부임 이후 김정은과 대면접촉 없어”(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 평양에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2014년 평양에 도착한 이래 김정은 위원장과 대면접촉은 한 적이 없다”면서 “구두 또는 서신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마체고라 대사는 2015년 3월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함.
-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지도부에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이들이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고위급 협력 상대”라고 덧붙임.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1. 27.

■ **北, 이란과 문화·교육 등 분야 양해각서 체결(연합뉴스)**

- 북한은 이란과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문(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화국 정부와 이란 정부 사이의 문화, 예술, 교육, 대중보도, 체육 및 청년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2018년~2021년 양해문이 24일 이란의 테헤란에서 조인되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강삼현 이란 주재 조선 대사와 압바스 카메흐야르 이란 이슬람교 문화연락기구 국제사업 담당 부위원장이 양해문에 각각 수표했다”고 전함.

2018. 2. 1.

■ **北매체 ‘김정은 연하장 받은 정상’ 거명순서, 中·러 뒤로 밀려(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며 연하장을 받은 각국 정상들을 이름 없이 직책으로 언급함.
- 중앙통신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몰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몽골 대통령, 시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순으로 거론함.
-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쿠웨이트,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베트남 정상을 거론한 이후에야 언급했는데, 순서로 보면 중국은 5번째, 러시아는 13번째임.

■ **요르단,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1일 AFP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의 동맹국인 요르단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했다”고 전함.
- 요르단 정부 소식통은 “요르단과 북한의 관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함.
- RFA는 “요르단이 미국으로부터 금융 및 군사지원을 받는 주요 수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해에는 요르단 육군과 공군에 미화 4억7천만 달러를 지원한 바”있다고 전함.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1.27		미 국방 “한국과 모든 레벨서 매일 매우 투명한 소통”(연합뉴스)
			美국방부 “키리졸브·독수리연습, 韓 방어태세 유지에 필요”(연합뉴스)
		송영무-매티스 “한미동맹 굳결 시도 실패할 것…北비핵화 공조”(연합뉴스)	
	01.28		美국방 “올림픽 대화가 北비핵화 목표 흐트러뜨려선 안돼”(연합뉴스)
	01.30	“WTO 제소는 한계…LNG 수입제한·美법원 제소 병행해야”(연합뉴스)	
	01.31		빅터차 주한미대사 내정자 중도 낙마…“북핵·한미FTA 이견”(연합뉴스)
02.01	외교부 “美, 한미협 의 전 빅터차 관련 보도에 양해구해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1.30		[올림픽] 中알리바바도 평창 응원한다…첫 공식 스폰서(연합뉴스)
	02.01		추귀홍 中대사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진심으로 기원”(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1.29		日관방 “아베, 평창 한일정상회담서 위안부 합의이행 요구할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02.02	한러 북핵 수석대표 모스크바서 회담…“미북대화 위해 공동노력”(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01.31	트럼프 “중·러 우리 이익에 도전…방어 차원에서 핵무기 현대화”(연합뉴스)	
			중외교부, 트럼프 비판…“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관념 버려야”(연합뉴스)
	02.01		중외교부, 美CIA국장 맹비난…“도대체 누가 정보 훔치나” 반격(연합뉴스)
	02.02		중상무부, 미국에 “경제·무역 문제 정치화 말라” 경고(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1.28		교도 “日정부, 틸러슨 위안부 발언은 한국 편든 것…美에 항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1.30	미 국무부 ‘대 러시아 추가제재 필요없다’…의회 통보(연합뉴스)	
			미국-러시아 ‘선거개입 내정간섭’ 서로 삿대질(연합뉴스)
	01.31	미 재무장관 “머지않아 러시아 추가제재”(연합뉴스)	
	02.01	FBI, 트럼프와 정면충돌…러시아 스캔들 문건공개에 강력반발(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1.28		日고노 “정상간 왕래 희망”…中왕이 “관계발전, 양국에 도움”(연합뉴스)
			中日외교장관 회담, 北제재 결의이행 일치…북핵 해법엔 이견(연합뉴스)

	1.29	중일 관계개선 훈풍부나...6년만에 방위분야 교육교류도 재개 (연합뉴스)	
		中日 6자수석대표 베이징 회동...“한반도비핵화 공통목표로 확인” (연합뉴스)	
	01.30	中군용기 JADIZ 진입에 日 “중일관계에 찬물”...中 “문제안돼” (연합뉴스)	
	01.31	中, 日기업에 남중국해·센카쿠에 中영유권 표시 지도 사용 요구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01. 27.

■ 미 국방 “한국과 모든 레벨서 매일 매우 투명한 소통”(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과 모든 레벨에서 매일 매우 투명한 의사소통을 한다”면서 “매우 개방된 소통이고, 우리 사이에는 절대적 신뢰가 있다”고 말함.
- 매티스 장관은 이날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하와이로 향하던 중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하와이에서 만날 예정인 송영무 국방장관을 거명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잘못된 의사소통도 없었다”고 밝힘.
- 그는 또 “군사옵션은 존재한다. 군사옵션이 존재하므로 외교관들이 권위를 갖고 말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한국인들이 공격당한다면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한국인들과 어깨를 맞대 함께 힘을 모아 싸울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공격이 시도된다면, 그 공격은 혹독하게 패퇴당할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방부 “키리졸브·독수리연습, 韓방어태세 유지에 필요”(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에 대해 “한국 방어를 위한 동맹의 준비 태세 유지에 요구되는 정례적 훈련”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헤더 뱀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이 방송에 “올림픽 정신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연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시작을 겹치지 않도록(de-conflict)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뱀 대변인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명확히 했듯,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며 “이는 국제적으로 많은 외교적 지지를 받고 있는, 외교가 주도하는 노력”이라고도 말함.

■ 송영무-매티스 “한미동맹 균열 시도 실패할 것…北비핵화 공조”(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음.

- 국방부는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018년 1월 26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음.
- 국방부는 “양 장관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계속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2018. 01. 28.

■ 미국방 “올림픽 대화가 北비핵화 목표 흐트러뜨려선 안돼”(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고 밝힘.
- 미 국방부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의 무모한 수사와 위험한 도발에 대해 외교가 그 이유를 대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압박 필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는 올림픽 대화 하나만으로는 중대한 문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고 말함.
- 매티스 장관은 또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올림픽 대화를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 작전이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힘.

2018. 01. 30.

■ “WTO 제소는 한계…LNG 수입제한 美법원 제소 병행해야”(연합뉴스)

- 최근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결정하자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예고하며 맞불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적정한 수준’의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제한, 우리 기업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이 거론됨.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 방안’ 긴급 좌담회에서 “정부가 WTO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대응 방향에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2018. 01. 31.

■ **빅터차 주한미대사 내정자 증도낙마…“북핵·한미FTA 이견”(연합뉴스)**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30일(현지시간) 주한 미국 대사직에서 내정 철회됨.
- 한 달 전 한국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까지 받은 한국계인 차 석좌는 북핵에 대한 대처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싼 백악관과의 이견 탓에 결국 낙마한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사안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당초 주한 미 대사로 선택한 차 석좌가 지난해 12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이견을 표명한 뒤 더는 지명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함.

2018. 02. 01.

■ **외교부 “美, 한미협의 전 빅터 차 관련 보도에 양해구해와”(연합뉴스)**

- 외교부는 1일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낙마와 관련, “미 측은 한국 측과의 적절한 협의 이전에 관련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제 관련 보도가 있는 이후에 미 측은 우리 측에 대해 주한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부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 왔다”고 덧붙임.
- 노 대변인은 또 “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주한 대사의 조속한 부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양국은 주한대사 임명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각급 수준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2018. 01. 30.

■ **(올림픽) 中알리바바도 평창 응원한다…첫 공식 스폰서(연합뉴스)**

-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Alibaba·阿里巴巴)가 사상 첫 글로벌 마케팅 행사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택하고 대대적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 알리바바는 30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으며, 이날부터 대회 기간까지 세계인에게 올림픽 정신과 알리바바 브랜드를 알리는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마케팅은 알리바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8년까지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 알리바바는 지구촌의 청년, 중소기업 등을 응원한다는 뜻에서 ‘작은 이들의 위대함을 위하여(To the greatness of small)’를 표어로 삼아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소셜미디어, TV,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광고를 펼친다.

2018. 02. 01.

■ 추귀홍 中대사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진심으로 기원”(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1일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이는 중국이 한국과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추 대사는 21세기한중교류협회와 주한중국대사관이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2018년 한중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한정 상무위원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추 대사는 또 “지난해 중한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양국 정부와 각계 인사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 한·일 관계

2018. 01. 29.

■ 日관방 “아베, 평창 한일정상회담서 위안부 합의이행 요구할 것”(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참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은 다음달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앞서 개회식장(평창올림픽스타디움) 인근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힘.
- 스가 장관은 “(정상회담에서는) 한일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측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함.

라. 한·러 관계

2018. 02. 02.

■ 한·러 북핵 수석대표 모스크바서 회담…“미북대화 위해 공동노력”(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가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최근 남북관계 진전을 미북 대화 등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함.
- 러시아를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약 4시간에 걸쳐 회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 본부장이 밝힘.
- 이 본부장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 진전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져온 긍정적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북 대화를 포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1. 31.

■ 트럼프 “중·러 우리 이익에 도전…방어 차원서 핵무기 현대화”(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우리는 불량 정권과 테러 그룹, 우리의 이익과 경제,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들에 직면해 있다”며 방어 차원의 핵무기 현대화와 재구축 방침을 밝힘.
- 집권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의사당에서 한 상·하원 합동의회 형식의 첫 국정연설에서 “이들 위협에 맞서면서 우리는 나약함이 갈등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필적할 수 없는 힘이 우리의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알았다”고 강조함.

- 그는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의회에 위협한 ‘시퀘스터(sequester · 국방예산 증액에 상한을 두는 자동 예산 삭감 조치)’ 제도를 없애고 우리의 위대한 군을 위해 충분히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함.

■ **중외교부, 트럼프 비판…“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관념 버려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이익과 경제, 가치에 도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냉전적 사고를 버리라고 주문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중미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공동 이익을 가진 동시에 일부 갈등도 있지만 양국 공동 이익은 갈등보다 크다”면서 이같이 말함.
- 화 대변인은 “역사와 현실이 입증했듯이 협력은 중미 양국의 유일하고도 정확한 선택이며 공영해야만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함.

2018. 02. 01.

■ **중외교부, 美CIA국장 맹비난…“도대체 누가 정보 흘치나” 반격(연합뉴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정보를 훔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오히려 미국이 전 세계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타국을 감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섬.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중국 사자성어인 상유심생(相由心生·외면은 내면에 의해 형성된다)이 떠오른다”면서 이같이 말함.
- 화 대변인은 미국 CIA를 겨냥해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보기관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이상하지 않다”면서 “사실이 웅변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공개된 정보들을 보면 도대체 전 세계에서 누가 다른 국가에 대해 감청, 감시 및 정보를 훔치고 침투하고 있는가”라며 반문함.

2018. 02. 02.

■ **중상무부, 미국에 “경제·무역 문제 정치화 말라” 경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미국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섬.
- 2일 신량망(新浪網·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겨냥해 “중미 양측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 동반자이며 현재 가장 중요한 무역 동반자이자 투자 상대”라고 밝힘.
- 가오 대변인은 지난해 중미 무역액이 5천 800억 달러(620조 8천 900억원)를 돌파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상생이며 양국 경제·무역 협력은 양국과 양국 국민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8. 01. 28.

■ 교도 “日정부, 틸러슨 위안부 발언은 한국 편든 것…美에 항의” (연합뉴스)

- 일본 교도통신은 28일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함.
- 틸러슨 국무장관은 당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이것은 오직 그들(한국과 일본)이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 “우리는 해야 할(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함.
-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미국 측에 미국이 한일합의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함.

다. 미·러 관계

2018. 01. 30.

■ 미 국무부 ‘대 러시아 추가제재 필요없다’…의회 통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추가로 대(對) 러시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으며, 지난해 8월 제정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이유임.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의회에 이 법안(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과 그 법의 이행으로 러시아의 방위산업 수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힘.
- 노어트 대변인은 “그 법의 제정으로 외국 정부들이 이미 발표했거나 계획하던 수십억 달러어치의 러시아 방산물자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함.

■ 미국-러시아 ‘선거개입 내정간섭’ 서로 맞대질(연합뉴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올해 11월 있을 미국 중간선거에도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함.
- 폼페이오 국장은 “미국과 유럽을 전복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함.
- 그는 11월 중간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그들은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힘.

2018. 01. 31.

■ 미 재무장관 “머지않아 러시아 추가제재”(연합뉴스)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대(對)러시아 제재 문제와 관련해 “머지않아 추가적인 제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새로운 러시아 제재가 나올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몇 달 안에, 아마도 한 달(안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므누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국무부가 현지점에서 추가로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옴.
-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제정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 판매와 에너지 수출, 인권 유린 등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제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놓음.

2018. 02. 01.

■ FBI, 트럼프와 정면충돌…러시아 스캔들 문건공개에 강력반발(연합뉴스)

- 31일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9일 공화당의 주도로

- 미 하원이 2016년 미 대선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뮐러 특검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문건을 공개하기로 하자, FBI가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문건의 문건은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의 이름을 따 ‘누네스 메모’로 불림.
- FBI가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에 대한 감시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수사 자체를 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1일 이를 공개할 예정임.
 - FBI는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누네스 메모와 관련, “FBI는 정보위의 공개 결의 하루 전에야 이를 검토할 기회를 받아 제한적이었다”고 밝힘.

라. 중·일 관계

2018. 01. 28.

■ 日고노 “정상간 왕래 희망”…中왕이 “관계발전, 양국에 도움”(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하고 대북 대응과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중국신문망,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정상 간 왕래를 비롯해 (중국과) 전면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싶다”며 “국민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류도 깊게 해 신뢰관계를 강화해가고 싶다”고 강조함.
-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대(對)중국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양국의 사회, 각계의 공통된 바람이다”고 말했다고 전함.

■ 中日외교장관 회담, 北제재 결의이행 일치…북핵 해법엔 이견(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8일 베이징(北京) 조어대 국민관에서 만나 북핵문제와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함.
- 북핵문제와 관련,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북핵 해결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 베이징 소식통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자국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재차 강조하고 일본 측은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 강화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2018. 01. 29.

■ **중일 관계개선 훈풍부나…6년만에 방위분야 교육교류도 재개(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방위 당국간 교육 교류를 6년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양국간 방위 분야 교육 교류는 2003년부터 시작됐지만,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일본이 국유화를 선언한 2012년 9월 이후 중단됨.
- 지난 28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양국 정상외 상호방문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방위분야 교류도 재개키로 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개선 분위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中日 6자수석대표 베이징 회동…“한반도비핵화 공통목표로 확인”(연합뉴스)**

- 중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통목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29일 밝힘.
-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쑹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의견을 교환함.
- 이들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내용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통목표라는 점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대응 등으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무성은 덧붙였다.

2018. 01. 30.

■ **中군용기 JADIZ 진입에 日 “중일관계에 찬물”…中 “문제안돼”(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9일 중국 군용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 “중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제를 촉구함.
- 고노 외무상은 또한 28일 방중 때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예방하고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회담한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관계 개선을 하려는 정치적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강조함.
- 고노 외무상은 동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중일 방위당국 간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 운용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도록 조정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임.

2018. 01. 31.

■ 中, 日기업에 남중국해·센카쿠에 中영유권 표시 지도 사용 요구(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센카쿠(尖閣·중국어명 дя오위다오<釣魚島>)열도,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런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지도를 사용한 일본기업에 ‘시정’을 요구함.
- 31일 중국 인터넷매체 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리측량정보국은 최근 일본의 생활용품기업 무지(無印良品)가 배포한 ‘2017년 추동 가구’ 브로셔 지도에 모두 4가지의 심각한 잘못이 발견됐다고 통보함.
- 지도에 중국 당국의 심의 번호가 부착돼 있지 않고, 국가간 경계선이 잘못 그려져 있으며 дя오위다오, 남중국해 제도 등 중요 도서를 빠트렸으며 하이난(海南)성과 중국 대륙을 다른 색깔로 표시했다는 것임.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27	몽골 “북한 노동자 1천여명 6월까지 추방... 협력사업 다음달까지 폐쇄”(미국의소리)
	1.30	앙골라 “북한 노동자 모두 내보내”... 아프리카에서 북한 입지 축소(미국의소리)
	1.31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 대부분 사회기반시설, 장애인 접근 불가”(미국의소리)
		김정은, 억류 미국인 협상카드로 고려 안 하는 듯... 문제 해결 어려워(미국의소리)
2.1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주민 대변... 북한 두려움 느낄 것(미국의소리)	
	미 전문가들 “트럼프 국정연설 북한 발언은 인권문제 지적인 한국 국회 연설 재강조한 것”(미외교)	
북한인권 내부동향		특이사항 없음
북한인권 남한동향	1.29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운영 연장... 2011년 이후 8년째 운영(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1.27	한국 내 탈북자들 “북 예술단 응원단 체제선전용에 불과”(자유아시아방송)
	1.31	미국 내 탈북자들 “난민입국 금지 해제 환영... 큰 변화는 없을 것”(미국의소리)
		탈북민 설문조사서 22.9% “北 돌아가고 싶다 생각한적 있어”(연합뉴스)
		탈북단체들 “트럼프 국정연설로 탈북자 사회 한껏 고무”(자유아시아방송)
	2.1	트럼프 국정연설에 탈북자 지성호씨 등장... “자유에 대한 열망”(연합뉴스)
		목숨 걸고 넘어온 뒤 곧바로 ‘잉여인간’으로 전락했다(연합뉴스)
2.2	탈북자 9명, 백악관서 트럼프와 대화(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2.2	인권전문가 탈북자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인권 관심, 행동으로 옮겨야”(미국의소리)
	1.30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6만명 잠재적 기아... 의도치 않은 제재 결과”(미국의소리)
	2.1	국제적십자 “북한 산중독감 감염 11만여명으로 증가... 1주일새 3만여명 추가 감염(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1. 27.

- **몽골 “북한 노동자 1천여명 6월까지 추방... 협력사업 다음달까지 폐쇄”(미국의소리)**
 - 몽골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며 올해 중순까지 이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힘. 북한과의 합작사업체에 대해서도 강제 폐쇄 절차에 착수함. 몽골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몽골은 지난해 12월 2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26일 공개된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함. 가장 눈에 띄는 건 몽골 내 북한 노동자에 관한 부분임. 지난해의 경우 실제 노동 허가가 발급된 건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1천 221명뿐이었음.
 - 아울러 2016년에는 2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추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몽골 정부는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인에 대한 새로운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북한과 맺은 노동자 교류와 관련한 계약은 올해 6월 1일까지만 이어진다고, 6월 3일에는 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함.

2018. 1. 30.

- **앙골라 “북한 노동자 모두 내보내”...아프리카에서 북한 입지 축소(미국의소리)**
 - 친북 성향을 보여온 앙골라가 북한인 노동자를 모두 내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함.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
 - 앙골라 정부는 북한의 건설회사인 ‘만수대’와의 모든 거래를 끊었다고 밝힘.
 - 지난해 12월 2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돼 이달 29일 공개된 앙골라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앙골라 건설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그룹’의 자회사인 ‘만수대 앙골라’와 국가 재건을 위해 맺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함.
 - 따라서 ‘만수대 앙골라’는 지난해 11월 13일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 회사에 소속돼 있던 북한인 노동자와 고용인들에게도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명시함.
 - 앞서 앙골라 국영매체 ‘저널 디 앙골라’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 노동자 153명 가운데 55명이 앙골라를 떠났다고,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2018. 1. 31.

■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 대부분 사회기반시설, 장애인 접근 불가”(미국의소리)

- 북한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함. 북한의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고도 우려함.
-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함.
- 지난 해 5월 북한을 방문했던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열리는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앞서 미리 제출한 방북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힘.
-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방북 기간 중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목격했다고 말함.
- 그러면서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주택 시설과 환경적 장벽,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생활의 모든 면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어려움이라고 지적함.

■ 김정은, 억류 미국인 협상카드로 고려 안 하는 듯…문제 해결 어려워(미국의소리)

- 과거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김정은이 김정일과 달리 미국인 억류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30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정은의 의도를 알기 어려워 미국인 억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또 북한이 자신의 인도주의 방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함.
-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또한 과거에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에 대한 협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북한이 그들을 왜 붙잡아 두고 있는지, 왜 억류하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함.
-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김정은이 미국인 석방, 미군 유해 송환, 북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둔 것 같다고 밝힘.

2018. 2. 1.

■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주민 대변...북한 두려움 느낄 것(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대변했다고 탈북자 지성호 씨가 말함. 백악관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직접 참석했던 탈북자 지성호 씨는 3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관심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함.
- 지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직접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 문제 해결에 큰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말함.
-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을 탈출해서 나간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미국 대통령 초청을 받아가지고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덧붙임.

■ 미 전문가들 “트럼프 국정연설 북한 발언은 인권문제 지적한 한국 국회 연설 재강조한 것”(미국의소리)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확고한 대북 인식과 정책을 무리 없이 잘 전달했다고 평가함.
- 북한 독재정권의 잔혹성과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협을 강조한 게 일관성이 있다는 지적임. 북한 탈출을 승리로 묘사한 건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간접 시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옴.
-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발언을 고무적으로 평가함.
- 미 대학생 오토 웹비어의 가족과 탈북민 지성호 씨의 강력한 이야기 등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해 대북 압박을 계속 강조한 것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라는 것임.
- 북한 발언 대부분을 인권으로 채우며 웹비어 가족과 지성호 씨까지 등장한 것을 볼 때 역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강조했던 한국 국회 연설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미 전문가들의 중론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1. 29.

■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운영 연장…2011년 이후 8년째 운영(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함.
- 인권위 북한인권특위는 2011년 처음 설치된 이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북한인권법·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현안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해옴.
- 인권위 규칙상 특위는 1년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으나, 북한인권특위는 매년 전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함.
- 현 특위 위원장인 한위수 인권위원(비상임)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계속 필요하고 통일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권위가 하기 위해서라도 특위 연장이 필요하다”며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특위 운영 연장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함.
- 다만 현재 특위 위원들 가운데 한 위원장과 이은경 위원(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인권위원 임기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만큼 특위 위원 구성은 달라질 것으로 보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1. 27.

■ **한국 내 탈북자들 “북 예술단 응원단 체제선전용에 불과”(자유아시아방송)**

- 한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 체제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함.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 방문단이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느끼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함.
- 탈북자들은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예술단과 응원단의 파견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북한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체제 선전의 장으로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임.
- 임명을 요구한 북한 보위성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 통일전선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예술공연 같은 경우 선전선동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선전 효과와 예술적 완성 등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2018. 1. 31.

■ **미국 내 탈북자들 “난민입국 금지 해제 환영…큰 변화는 없을 것”(미국의소리)**

- 미국 정부가 북한 등 ‘고위험군’ 11개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함. 북한인권 전문가와 탈북자들은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탈북난민들의 미국 입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14년 동안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220명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탈북난민들을 미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3국에서 탈북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대북 방송을 통해 미국과 미국 정착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도, 탈북난민들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탈북민 설문조사서 22.9% “北돌아가고 싶다 생각한적 있어”(연합뉴스)**

- 국내 거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2.9%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북한인권 단체가 31일 밝힘.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이날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조사’에서 탈북민 전문 조사기관인 (주)엔케이소셜리서치와 함께 지난해 전국의 15세 이상 탈북민 4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나는 질문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1.8%(298명)로 다수를 차지함.
-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가끔 있다는 응답이 14.7%(61명)였고, 종종 있다는 응답은 4.8%(20명), 많이 있다는 응답은 3.4%(14명)로 전체의 22.9%를 차지함
- 북한으로의 복귀를 고려하는 이유(다중응답)로는 ‘가족이 그리워서’(34.3%), ‘고향이 그리워서’(28.5%) 등을 주로 꼽음.

■ 탈북단체들 “트럼프 국정연설로 탈북자 사회 한껏 고무”(자유아시아방송)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 지성호 씨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탈북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함. 한국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미국 대통령이 대신했다는 목소리도 나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국정 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함. 이 자리에는 탈북자이자 북한인권 운동가인 지성호 나우 대표도 함께 있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지 대표를 지목하며 “북한 정권의 사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사람이자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라고 강조함.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 상황을 언급한 것임.
-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한국 사회에 전해지자 탈북자 사회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임. 탈북단체장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국정연설에 탈북자 지성호씨 등장…“자유에 대한 열망”(연합뉴스)

- 대북 압박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하이라이트는 탈북자 지성호 씨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막바지에 “섬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 명의 목격자”라면서 이날 연설의 특별 게스트 중 한명으로 참석한 탈북자 지성호 씨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소개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씨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에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알린다”면서 “지씨의 ‘위대한 희생’은 우리에게 영감”이라고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씨의 스토리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 영혼의 열망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탈북자를 통해 보편적 인권 문제에 호소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옴.

2018. 2. 1.

■ 목숨 걸고 넘어온 뒤 곧바로 ‘임여인간’으로 전락했다(연합뉴스)

- 2002년 비무장지대의 북한군 심리전 방송국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주승현씨가

분단사회를 조명한 ‘조난자들’을 발간함.

- DMZ를 건너 무사히 귀순한 그는 연세대에서 통일학으로 석·박사를 마친 뒤 현재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 중이지만, 주씨는 신간 ‘조난자들’(생각의힘 펴냄)에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뒤 곧바로 ‘잉여인간’으로 전락했다”고 회고함.
- 주씨는 6년간 술하게 접했던 남한의 대북방송도, 한국 사회로 진입하는 통로인 하나원에서의 교육도 그에게 분단의 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회고함.
- 주씨는 탈북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었다고 말함.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불쑥 드러나는 북한(민)을 향한 적대감, “못나고 가난한 아우”를 대하는 듯한 묘한 승자적 감정이 탈북민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함.

■ 탈북자 9명, 백악관서 트럼프와 대화(자유아시아방송)

- 탈북 장애인 지성호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장에 초대돼 북한 인권 참상의 산 증인으로 화제가 되는데 이어, 한국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9명이 백악관에 초대돼 북한 실상을 전하게 됨.
- 이번 행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탈북자들이 2일 오전 9시부터 약 30분 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관료들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말함.
- 이번 행사에는 북한 인권단체인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를 비롯해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근무하는 탈북 기자도 참석함.
-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탈북자들은 이번 대화 시간에 미국이 당면한 북핵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짐.

2018. 2. 2.

■ 인권전문가 탈북자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인권 관심, 행동으로 옮겨야”(미국의소리)

-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한 것을 환영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이번 연설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함.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즈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핵심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매우 강력한 연설이었다고 말함.

-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 덧붙임.

5. 대북지원

2018. 1. 30.

-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6만명 잠재적 기아...의도치 않은 제재 결과”(미국의소리)**
 - 북한 어린이 6만 명이 잠재적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힘.
 - 오마르 아브디 유니세프 부총재는 오늘(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지원 물자 전달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아브디 부총재는 인도주의 지원과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물자를 제공하거나 운반하는 기업들이 연루 가능성을 우려해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북한에 자금과 물자를 반입하는 것을 더욱 지연시키고,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임.
 - 마누엘 폰테인 유니세프 긴급구호국장도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 북한 어린이 6만 명이 잠재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냄.
 - 유니세프는 올해 북한 주민들의 영양 지원을 위해 1천 65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긴장된 정치 상황과 “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힘.

2018. 2. 1.

- **국제적십자 “북한 신종독감 감염 11만여명으로 증가”...1주일새 3만여명 추가 감염(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신종독감에 감염된 환자가 지난 23일 기준 1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힘. 앞서 16일 기준 8만 여명이었던 것에 비해 3만 여명 증가함. 국제적십자사는 3만 7천여 달러를 투입해 예방과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임.
 - 광 대변인은 현재 신종독감이 북한 전역에 확산됐으며, 29%가 평양에서 발생했다고 밝힘. 또 감염자의 절반이 17세 미만 어린이라고 설명함. 사망자는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 등 4명으로 변함이 없음.

- 팡 대변인은 신종독감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선적십자회가 북한 보건성과 매일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국제적십자사도 북한 내 신종독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구호 긴급기금 35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 승인 절차에 있다고 밝힘.